

중국어 맞장구 표현

—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이지원**

◁ 목 차 ▷

- I. 서론
 - II.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 III. 중국어 맞장구 표현 비교
 - 1. 중국인 화자들 간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중국어 맞장구 표현 출현 빈도 및 위치
 - 2.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 간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중국어 맞장구 표현 출현 빈도 및 위치
 - IV.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 간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중국어 맞장구의 기능
 - V. 결론
-

I.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 간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중국어 맞장구(backchannels) 표현이 말차례 내에서 출현하는 위치와 특징을 밝히고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맞장구 표현의 상호작용적인 기능을 분석하는 데 있다.

맞장구라는 용어는 Yngve(1970)에 의하여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Yngve는 화자의 발화에 대한 청자의 관심이나 흥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짧은 언어적 신호 또는 고개 끄덕임 등 제스처를 맞장구라고 규정한다. 이후 Duncan and

* 본고는 2016년 10월 29일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중문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임.

** 가천대학교 동양어문학과 조교수

Fiske(1977)에서는 맞장구 행위의 범위를 확장시켜 문장 완성, 해명 요구, 간략한 진술, 비언어적 반응 등을 포함시킨다.¹⁾ 맞장구 표현과 관련된 여러 연구가 있으나 맞장구에 대한 정의는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Clancy et al.(1996)에서의 주장에 따라 맞장구를 비어휘적 음성적 요소(non-lexical vocalic form)로 상대방 화자가 말차례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 또는 권유하는 표시(continuer)를 하거나 상대방 화자의 발화에 대한 관심(display of interest) 또는 이해(claim of understanding)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현으로 정의한다.

맞장구와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는 영어와 일본어에서 출현하는 맞장구 표현을 비교 분석하여 각 언어에서 나타나는 맞장구 행위의 특징을 밝히는 교차 언어적 분석이 많다(Iwasaki 1990, Maynard 1986, 1989, White 1989). 중국어 맞장구와 관련된 대표적인 교차 언어적 분석으로는 Clancy et al.(1996)이 있다. 그들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에서 사용되는 맞장구 표현을 비교 분석하여 중국어 화자가 영어 화자와 일본어 화자에 비하여 반응발화를 현저하게 적게 사용하며 중국어 화자는 일본어 화자에 비하여 어휘적으로 의미를 가진 반응표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Deng(2008)에서는 중국인들과 호주인들이 사용하는 청자 반응을 비교 분석하여 중국인들은 호주인들에 비하여 청자 반응발화를 덜 사용하며 준언어적인 모음 유형(vocalic forms)을 자주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이홍염(2011)은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나타나는 맞장구 표현을 비교 분석하여 형식적인 측면에서 한국어는 전형적 형식을 선호하고 중국어는 상황적 형식을 선호하며 기능적인 측면에서 한국어는 중국어보다 결합기능과 복합기능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Young and Lee(2004)에서는 영어 화자들은 반응발화를 사용하여 전체 말차례의 기회를 상대방 화자에게 넘기는데 반하여 한국인 화자들은 종종 말차례를 진행 중인 화자에 의하여 반응발화의 사용이 유도됨을 밝힌다.

1) 화자의 발화에 대한 청자의 반응은 구체적으로 맞장구(backchannel)(Yngve 1970; Duncan 1972; Duncan & Fiske 1977, 1985), 지속적인 주의 신호(signals of continued attention)(Fries 1952), 청자반응(listener responses)(Bavelas, Coates, & Johnson 2002), 반응표시(reactive tokens)(Clancy et al. 1996), 인정표시(acknowledgment tokens)(Jefferson 1984, 1983/1993; Drummond & Hopper 1993), 접수 표시(receipt tokens)(Heritage 1984), 대답표시(response tokens)(Gardner 2001) 등 다수의 용어로 사용된다.

이와 같이 맞장구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특정 언어의 원어민 화자가 모국어에서 수행하는 맞장구 표현과 관련된 것이며 교차문화적인 측면에서 맞장구를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구체적으로 Günthner(1993)에서는 독일인 화자가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중국인 독일어 화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맞장구를 자주 사용하는 반면 중국인 독일어 화자는 맞장구를 드물게 사용하여 독일인과의 원만한 의사소통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 Tao & Thompson(1991)에서는 중국인 모국어 화자들의 중국어 대화와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중국인 화자들의 중국어 대화에서 출현하는 맞장구 현상의 유형, 빈도, 기능을 분석하여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중국인 화자들은 중국인 화자들 간의 대화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영어 맞장구 전략들을 중국어 대화에서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 간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맞장구 표현을 교차문화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 맞장구와 관련된 연구에서 관심을 두지 않았던 한국어가 모국어인 한국인 중국어 화자와 중국어가 모국어인 중국인 화자 간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맞장구 표현을 중심으로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가 맞장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상호작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맞장구 표현의 기능을 밝히고자 한다.

II.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맞장구 표현과 중국인 화자들의 대화에서 출현하는 맞장구 표현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중국인 화자들의 대화와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들의 대화를 디지털 캠코더로 녹화한다. 녹화에 참여한 대화참여자들은 총 18명이며 중국인 화자들 간의 대화에 참여하는 화자는 10명이며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 간의 대화에 참여하는 화자는 8명이다. 한국인 중국어 화자들은 모두 5년 이상 중국어를 학습하였으며 중국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고급 수준의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들이다. 대화참여자들에게는 특정 대화 주제를 정해 주지 않으며 사전에 준비 없이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대화 자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1〉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의 대화 자료

대화 자료	촬영 시간	대화참여자		관계
		중국인	한국인	
1	45분	23세 남자 대학생 四川	24세 여자 대학생 중국에 2년 거주 중국어 4년 학습	친구
2	45분	20대 여자 직장인	50대 남자 대학생 중국어 10년 학습	친구
3	30분	24세 여자 대학생 杭州	21세 여자 대학생 중국 13년 거주	친구
4	30분	24세 남자 대학생 吉林	23세 여자 대학생 중국에 10년 거주	친구

〈표 2〉 중국인 화자들의 대화 자료

대화 자료	촬영 시간	대화참여자		관계
		중국인	중국인	
5	30분	25세 여자 직장인 吉林	25세 남자 대학생 吉林	친구
6	30분	20세 여자 대학생 湖南	23세 여자 대학생 湖北	친구
7	30분	23세 여자 대학생 黑龍江	23세 남자 대학생 廣東	친구
8	30분	21세 여자 대학생 湖南	21세 여자 대학생 北京	친구
9	30분	24세 남자 대학생 大慶	23세 남자 대학생 江蘇	친구

위의 대화 자료들은 대화분석에서 사용하는 Gail Jefferson의 전사체계 (Atkinson and Heritage 1984)에 의하여 가능한 한 세부적으로 전사한다. 대화 분석용 전사본은 Jefferson의 전사 체계를 일부 수정하여 첫 번째 줄에는 중국어 대화를 철자법에 맞게 한자로 전사하고 두 번째 줄에는 형태소별(morpheme by morpheme) 번역을 제공하며, 마지막 셋째 줄에 한국어 번역을 사용한다.

연구대상인 맞장구는 상대방 화자의 발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위치에서 출현하는가에 따라 표시하는데 Ford and Thompson(1996)에 따라 통사적 단위의 완결 지점에서 맞장구가 나타나는 경우는 ‘/’로 나타내고, 화용적 단위의 완결 지점일 경우는 ‘)’로 나타내고, 억양적 단위의 완결 지점일 경우는 하강조는 ‘.’로 상승조는 ‘?’로 나타낸다. 통사적 완결점(syntactic completion)은 발화가 통사적으로 완결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으로 만회할 수 있는 서술어가 있는 경우이거나 선행 문맥과 관련되어 생략된 구, 질문에 대한 대답, 맞장구를 포함한 구, 절, 다수 절로 이루어진 단위들이 통사적 완결점이 될 수 있다. 억양적 완결점(intonational completion)은 하나의 일관된 억양 윤곽하에서 발음되는 발언 기간(Du Bois et al. 1993)을 나타내며 억양적 완결점을 확인하는데 통사적 경계는 고려하지 않는다. 화용적 완결점(pragmatic completion)은 종결 억양 윤곽이어야 하며 특정 순차적 맥락에서 대화 행위가 완결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화용적 완결점은 상호작용적인 문맥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정보 회복 가능성에만 의존하는 통사적 완결점과는 차이가 있다. 다음은 통사적, 억양적, 화용적 완결점을 표시한 전사본의 예이다.

(1)

1 A: 我就想起來一事./>
나 바로 생각이 나다 하나 사건
'사건 하나가 생각이 나.'

2 B: 嗯
BC
'응'

위의 전사본이 보여 주듯이 제1행에서 ‘我就想起來一事’가 끝나면서 통사적 완결점, 억양적 완결점, 화용적 완결점이 형성됨을 보여 준다. 맞장구는 화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요청 또는 제안에 대한 반응 등 화자와 청자의 연속된 두 발화가 짝을 이루어 대화의 기본을 이루는 구조 단위로 유형화된 쌍(pair type)을 구성(Schegloff and Sacks 1973)하지 않는다. 즉, 맞장구는 화자의 발화에 대한 청자의 의무적인 대응 발화가 아니며 화자의 진술 발화에 대한 청자의 선택적인 발화임으로 청자의 발화가 화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 또는 제안에 대한 반응처럼 인접쌍의 두 번째 짝부분으로서 기능을 한다면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분석 방법은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 간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맞장구 표현을 중국인 화자들 간의 대화에서 출현하는 맞장구 표현과 비교 분석하여 두 집단이 맞장구를 사용하는데 차이가 있음을 정량적인 측면에서 밝히고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 간의 대화에서 맞장구 표현이 대화 맥락에서 실제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정성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 간의 대화에서 사용되는 맞장구 표현의 기능을 밝힌다.

Ⅲ. 중국어 맞장구 표현 비교

1. 중국인 화자들 간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중국어 맞장구 표현 출현 빈도 및 위치

중국인 화자들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맞장구 표현의 출현 빈도 및 위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중국인 화자들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맞장구 표현

맞장구 출현 위치	통사적 완결점	억양적 완결점	화용적 완결점	어떠한 완결점도 아님	맞장구 개수
총계	394	396	394	12	408

위의 표가 보여 주듯이 중국인 화자들의 대화에서 출현하는 맞장구 수는 총 408개이며 통사적 완결점에서 394회, 억양적 완결점에서 396회, 화용적 완결점에서 394회, 어떠한 완결점도 아닌 곳에서 12회 출현한다. 총 408개의 맞장구 중 통사적 완결점, 억양적 완결점, 화용적 완결점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출현하는 맞장구 수는 394개이다. 이를 통하여 중국어에서는 어떠한 완결점도 아닌 지점에서 맞장구 표현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며 억양적 완결점과 화용적 완결점이 함께 일치하는 복합적추이적정지점(Complex Transition Relevance Places(CTRPs))(Ford and Thompson, 1996)에서 맞장구 표현이 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²⁾ 다음 대화의 예를 보자.

(2)

- 1 盛明月：我覺得是男方的家長不是特別喜歡她/ 因為我那個老師是28,29了. 所以還是跟小孩子似的./>
 나 라고 생각하다 이다 신랑측 POSS 가장 NEG 이다 매우 좋아하다 그녀 왜냐하면 나 저 CL 선생이다 28, 29 PRT 그래서 여전히 와 아이 같다
 ‘신랑측 가장은 그녀를 아주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 내 그 선생님이 28, 29이기 때문에 여전히 아이 같아.’

2 餘倩：嗯：
 BC
 ‘응’

위의 대화의 제1행에서 보여 주듯이 ‘我覺得是男方的家長不是特別喜歡她’에서 통사적 완결점이 나타나지만 맞장구 표현이 발생하지 않으며 ‘因為我那個老師是28,29了’에서 억양적 완결점이 나타나지만 맞장구 표현이 출현하지 않는다. 이어 ‘所以還是跟小孩子似的’에서 통사적 완결점, 억양적 완결점, 화용적 완결점이 일치

2) 많은 언어에서 말차레구성단위(turn- constructional unit)의 통사적 단위가 완결되거나 완결이 예상되는 지점인 통사적 완결점은 말차레 교대가 일어날 수 있는 추이적정지점(Transition Relevance Places(TRPs))을 예상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Sacks et al. 1974).

하는 복합적추이적정지점에서 맞장구 표현인 ‘嗯’이 출현한다.

중국인 화자들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맞장구 표현은 대부분 복합적추이적정지점이 형성된 직후 발생한다. 다음 대화 예를 보자.

(3)

1 A : 但是我那時候可以帶職./>
그러나 나 그 때 할 수 있다 직무를 그대로 유지하다
‘그러나 나는 그 때 직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어.’

2 →B : 哦哦
BC BC
‘오오’

3 A : =就是不去念./>
NEG 가다 학교에 다니다
‘학교에 안 다녀.’

4 →B : 哦
BC
‘어’

위의 대화에서 보여 주듯이 제1행의 ‘但是我那時候可以帶職’에서 복합적추이적정지점이 나타난 직후 제2행에서 맞장구 표현이 나타나며 제3행에서도 ‘就是不去念’에서 복합적추이적정지점이 출현한 후 바로 제4행에서 맞장구 표현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중국인 대화에서는 화자의 말차례가 통사적, 억양적, 화용적으로 완성되어 화자들 간의 교체가 가능해지는 복합적추이적정지점에 도달한 후 맞장구 표현이 나타남으로써 화자들 간의 발화 충돌 현상 없이 말차례 교체가 원만히 이루어진다.

그러나 중국인 대화에서는 모든 복합적추이적정지점에서 맞장구 표현이 출현하지는 않는다. 다음 대화의 예를 보자.

(4)

1 A : 然後她又自己喜歡歷史什麼的/ 對她考導遊什麼的有幫助./> 然後:

她還算有個固定的工作./> 但是沒什麼太大的改變./> 然後她也覺得那個工作會消磨人的意志./>

그런 후 그녀 또한 자기 좋아한다 역사 등 에게 그녀 시험을 보다 가이드 등 있다 도움 그런 후 그녀 또한 라고 생각하다 있다 CL 고정되다 POSS 일 그러나 NEG 어떤 매우 크다 POSS 변화 그런 후 그녀 또한 생각하다 그 CL 일 할 것이다 점차 없어지게 하다 사람 POSS 의지

‘그런 후 그녀는 또한 역사 같은 것을 좋아해서 가이드 같은 시험을 보는 것이 그녀에게 도움이 되었어. 그런 후 그녀는 고정적인 일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어. 그런 후 그녀도 그 일이 사람의 의지를 점차 없어지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

2 B: ((고개 끄덕임))

3 A: =她現在又得開始存錢./> 但是呢她其實沒有什麼要花錢的地方/但是她每次一有錢了就出去玩./>[hh

그녀 지금 또한 해야만 한다 시작하다 저금하다 그러나 PRT 그녀 사실 NEG 있다 어떤 해야만 한다 돈을 쓰다 POSS 곳 그러나 그녀 매번 하자마자 있다 돈 PRT 나가다 놀다

‘그녀는 지금 또한 저금을 시작해야만 해. 근데 그녀는 사실 돈을 써야만할 데가 별로 없어. 근데 그녀는 매번 돈이 생기기만 하면 나가서 놀아. hh’

4 B: [hh

위의 대화의 제1행에서 보여 주듯이 ‘然後她又自己喜歡歷史什麼的 對她考導遊什麼的有幫助 然後:她還算有個固定的工作 但是沒什麼太大的改變 然後她也覺得那個工作會消磨人的意志’라고 하는데 화자의 말차례 도중 네 차례의 복합적추이적 정지점이 연속적으로 형성되나 맞장구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른 언어들과 비교하여 중국어에서 맞장구 표현이 적게 나타나는 것과 관련하여 Clancy et al.(1996)에서는 상대방 화자를 간섭하지 않기 위한 중국인 화자의 태도가 적절히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중국인 화자들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개인적인 자율성에 높은 가치를 두고 다른 사람 위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을 피하

고자 하는데 이러한 중국인 화자들의 비강압적인 문화적 지향(non-coercive cultural orientation)이 중국인의 맞장구 사용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³⁾

또한 중국인 대화에서는 복합적추이적정지점에서 맞장구 표현이 출현하는 대신 고개 끄덕임이나 웃음 등이 사용되기도 한다. 제1행의 ‘然後她也覺得那個工作會消磨人的意志’에서 복합적추이적정지점이 형성되나 맞장구 표현이 출현하는 대신 고개 끄덕임이 나타난다. 제3행의 ‘她現在又得開始存錢 但是呢她其實沒有什麼要花錢的地方 但是她每次一有錢了就出去玩’에서도 발화 도중 두 차례의 복합적추이적정지점이 형성되나 맞장구 표현은 나타나지 않으며 ‘但是她每次一有錢了就出去玩’에서도 맞장구 표현이 나타나는 대신에 웃음이 나타난다.⁴⁾ 중국인 화자들은 복합적추이적정지점에서 상대방 화자의 말차례 진행에 잠재적으로 방해가 될 수 있는 언어적 요소들을 사용하는 대신 고개 끄덕임이나 웃음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들을 사용하여 상대방 화자의 발화에 대한 반응을 나타낸다.

2.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 간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중국어 맞장구 표현 출현 빈도 및 위치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의 대화에서 맞장구 표현의 출현 빈도 및 위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맞장구 표현

맞장구 출현 위치	통사적 완결점	역양적 완결점	화용적 완결점	어떠한 완결점도 아님	맞장구 개수
총계	699	713	694	184	897

위의 표가 보여 주듯이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의 대화에서 맞장구 표현은 총 897회 나타나서 중국인 화자들의 대화에서 맞장구 표현이 총 408회 나타

3) 한국인 중국어 화자와 중국인 화자의 맞장구 표현 사용 차이와 문화적인 관련성은 향후 연구로 남겨두도록 하겠으며 본 연구에서는 언어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4) 화자는 웃음으로써 상대방 화자의 발화를 이해하였으며 동의하였음을 나타낸다 (Jefferson 1979).

나는 것과 비교하여 약 두 배 정도 많이 나타난다. 맞장구의 출현 위치에 영향을 주는 언어적 요소들을 살펴 본 결과 중국인 화자들의 대화에서는 맞장구 표현이 대부분 통사적 완결점, 억양적 완결점, 화용적 완결점이 일치하는 복합적추이적정지점에서 나타나는 반면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의 대화에서는 복합적추이적정지점뿐만 아니라 복합적추이적정지점이 아닌 곳에서 출현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 대화의 예를 보자.⁵⁾

(5)

1 N: 在中國, 你只要你英語很好/
에서 중국 너 하기만 하면 너 영어 INT 좋다
'중국에서 네가 영어를 잘 하기만 하면'

2 →F: 嗯
BC
'응'

3 N: =就可以找份好的工作了./>
할 수 있다 찾다 CL 좋다 POSS 일 PRT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

위의 대화에서 보여 주듯이 제1행에서의 '在中國, 你只要你英語很好'은 복합적 추이적정지점을 형성하지 않았음에도 종속절과 주절 사이의 경계에서 맞장구 표현이 출현한다. 다음 대화 예도 복합적추이적정지점이 아닌 곳에서 맞장구 표현이 출현하는 것을 보여 준다.

(6)

1 N: 因為〔因為就是, 外國學生都是對待外國客人
때문에 때문에 PF 외국 학생 모두 상대하다 외국 손님
'외국 학생들은 모두 외국 손님을 상대하기 때문에'

2 →F: 〔嗯

5) N은 중국인 화자를 지칭하고 F는 한국인 중국어 화자를 지칭한다.

BC
'응'

위의 대화에서 보여 주듯이 제1행의 '因爲〔因爲就是, 外國學生都是對待外國客人〕에서 접속사 '因爲' 바로 뒤에서 맞장구 표현이 출현한다. 맞장구 표현이 복합적추이적정지점에서 가까운 말차례를 시작하는 접속사 바로 뒤에 나타남으로써 복합적추이적정지점에서 제시되어야 하는 맞장구 표현이 지체되어 접속사 뒤에서 나타났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분석 결과 한국어 중국어 화자와 중국인 화자 간의 대화에서 복합적추이적정지점이 아닌 곳에서 출현하는 맞장구 표현은 복합적추이적정지점에서 가까운 말차례의 아무 지점에서나 나타나지 않으며 주어, 목적어, 동사, 부사 등 말차례구성단위가 끝나는 지점에서 형성된다.⁶⁾ 다음 대화 예를 보자.

(7)

1 N: 因爲人比較多嘛, 各種文化〔都會有吧.〕/
 때문에 사람 비교적 많다 PRT 각종 문화 모두 할 수 있다 있다 P
 RT
 '사람들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각종 문화가 모두 있을 수 있어.'

2 →F:〔嗯。
 BC
 '응'

위의 대화에서 보여 주듯이 제1행에서의 '各種文化都會有吧'에서 말차례구성단위인 주어 '各種文化'가 끝나는 지점에서 맞장구 표현이 나타난다. 맞장구 표현은 복합적추이적정지점에서 비교적 떨어진 동사가 끝나는 지점에서도 나타난다. 다음 대화의 예를 보자.

(8)

1 N: 哎, 可是在韓國真的很多人主動跟你要〔這種電話.〕/
 RT

6) 복합적추이적정지점이 아닌 말차례구성단위가 끝나는 지점에서 맞장구 표현을 제시하는 것은 모든 한국어 대화참여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PRT 그러나 에서 한국 진짜 매우 많다 사람 주동적인 와 너 원하다 이 CL 전화
 ‘어, 근데 한국에서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주동적으로 너에게 이런 전화를 원해.’

2 F: 嗯
 BC
 ‘응’

위의 대화에서 보여 주듯이 제1행에서의 ‘可是在韓國真的很多人主動跟你要這種電話’에서 동사인 ‘要’가 끝나는 지점에서 맞장구 표현이 출현한다. 다음 대화의 예를 보자.

(9)

1 N: 東大門那邊有一家咖啡廳一直在找./>
 동대문 저 쪽 있다 하나 CL 카페 줄곧 마침 하고 있다 찾다
 ‘동대문 저 쪽에 한 카페는 줄곧 찾고 있어.’

2 F: 嗯.:
 BC
 ‘응’

위의 대화에서 보여 주듯이 제1행의 ‘東大門那邊有一家咖啡廳一直在找’에서 부사인 ‘一直’이 끝나는 지점에서 맞장구 표현이 제시된다.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 간의 대화에서 복합적추이적정지점이 아닌 곳에서 맞장구 표현이 출현하는 경우는 중국인 화자가 말차례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한국인 중국어 화자가 맞장구 표현을 제시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반대로 한국인 중국어 화자가 말차례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중국인 화자가 맞장구 표현을 제시한 경우도 있다. 다음 대화 예를 보자.

(10)

1 F: 可是:[我忘記了答案./>

그러나 나 잊어버리다 PRF 답안
'그런데 나는 답안을 잊어버렸어.'

2 N: [啊
BC
'아'

위의 대화에서 보여 주듯이 한국어 중국어 화자인 F의 말차례인 '可是::我忘記了答案'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접속사인 '可是'가 발화된 후 중국인 화자인 N의 맞장구 표현이 제시된다. 다음 대화의 예를 보자.

(11)

1 F: 如果我不能找工作的話
만약 나 NEG 할 수 있다 찾다 일 한다면
'만약 내가 일을 찾을 수 없다면'

(0.2)

2 N: 恩
BC
'응'

3 F: 那時候我在找貿易公司./>
그 때 나 마침 하고 있다 찾다 무역 회사
'그 때 나는 무역 회사를 찾고 있었어.'

위의 대화에서 보여 주듯이 한국어 중국어 화자인 F의 말차례가 '如果我不能找工作的話'라고 진행되는 상황에서 종속절과 주절 사이의 경계에서 중국인 화자인 N의 맞장구 표현이 제공된다. 다음 대화의 예를 보자.

(12)

1 F: 但是那個怎麼說, 發音和聲調

그러나 그 CL 어떻게 말하다 발음 과 성조
'그런데 그 뭐랄까, 발음과 성조'

(0.3)

2 N : 恩
BC
'응'

3 F : 兩個很困難./>
둘 CL 매우 어렵다
'둘이 매우 어려워.'

위의 대화에서 보여 주듯이 한국인 중국어 화자인 F의 말차례 중 주어인 '發音和聲調'가 발화된 후 중국인 화자인 N의 맞장구 표현이 제시된다. 다음 대화의 예를 보자.

(13)

1 F : 他就是覺得
그 생각하다
'개가 생각하기에'

(0.3)

2 N : 恩
BC
'응'

위의 대화에서 보여 주듯이 중국인 화자인 N의 맞장구 표현은 한국인 중국어 화자인 F의 말차례가 동사인 '覺得'까지 발화된 후 제시된다. 이와 같이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 간의 대화에서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모두 상대방 화자가 말차례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대방 화자의 말차례구성단위가 끝나

는 지점에서 맞장구 표현을 사용한다.

IV.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 간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중국어 맞장구의 기능

이 장에서는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 간의 대화에서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가 상대방 화자의 말차례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맞장구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구체적인 대화 맥락에서 살펴보고 그 기능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 대화의 예를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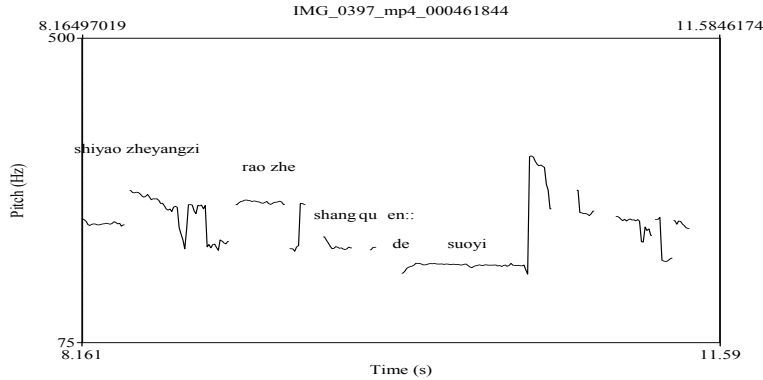
(14)

1 N: 因為我們去的那個景區是在山頂上, 是要這樣子繞著上去〔的
왜냐하면 우리 가다 POSS 저 CL 관광 지구 이다 에서 산꼭대기
위 이다 해야만 하다 이렇게 우회하다 하면서 올라가다
'우리가 가는 저 관광 지구는 산꼭대기여서 이렇게 우회하면서 올라
가야 하기 때문에.'

2 F: [嗯::
BC
'응'

3 N: =所以開車很慢./>
그래서 차를 몰다 매우 느리다
'그래서 차를 매우 느리게 몰아.'

〈그림 1〉 중국인 화자의 말차례 중간에 나타나는 한국인 중국어 화자의 맞장구 현상



위의 대화와 그림에서 보여 주듯이 중국인 화자가 ‘因為我們去的那個景區是在山頂上，是要這樣子繞著上去的，所以開車很慢’라고 말차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중국인 화자가 종속절인 ‘是要這樣子繞著上去的’의 마지막 음절인 ‘的’를 발화하는 도중 맞장구 표현인 ‘嗯’을 사용한다. 제3행에서 보여 주듯이 중국인 화자는 종속절인 ‘因為我們去的那個景區是在山頂上，是要這樣子繞著上去的’을 마치고 주절인 ‘所以開車很慢’을 끝이어서 발화함으로써 한국인 중국어 화자의 맞장구 표현 제시에도 자신의 말차례를 진행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 간의 대화에서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상대방 화자의 말차례 도중 말차례구성성분 간의 경계에서 맞장구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한국인 화자가 모국어 일상 대화에서 나타나는 맞장구 자원을 전이하여 사용한다. 한국어는 중국어와 유형학적으로 전혀 다른 계통에 속한 언어로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 또는 어간에 문법적 기능을 가진 요소가 차례로 하나씩 교차하는 과정을 통하여 점진적인 방식으로 제공되는 교차어이다. 교차어 또는 첨가어로서 한국어의 특징은 발화에서의 언어적 구성 성분들 간에 느슨한 통사적 관계를 이끌며 말차례 구성단위 경계에서 맞장구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김해연 2004).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중국인의 언어 행위에 따라 복합적추이적정지점에서 맞장구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어와 유형학적으로 전혀 다른 계통에 속한 한국어의 영향을 받아 중국인 화자의 말차례가 추이적정지점에 도달하기 전 말차례구성성분 간의 경계에서 맞장구 표현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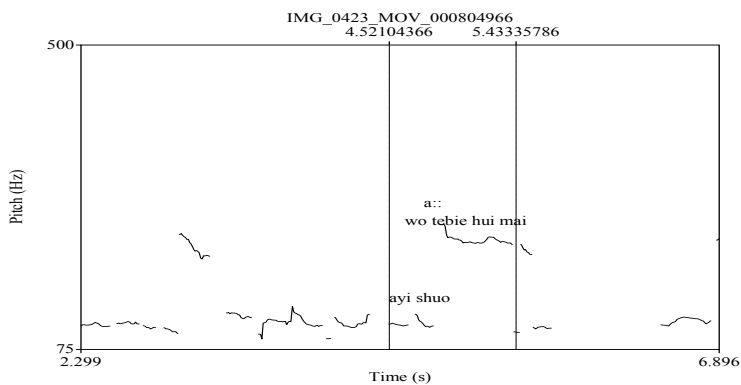
다음 대화의 예도 한국인 중국어 화자가 중국인 화자의 말차례가 복잡적추이적정 지점에 도달하기 전 말차례구성성분 간의 경계에서 맞장구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여 준다.

(15)

1 N : 那個阿姨對我特別好, 阿姨說(我特別會賣東西./>
 저CL 이모 에게 나 매우 좋다 이모 말하다 나 매우 할 수 있다 팔
 다 물건
 '저 이모가 나에게 매우 잘해줬어. 이모가 내가 매우 물건을 잘 판
 다고 했어.'

2 F : [啊::
 BC
 '아'

〈그림 2〉 한국인 중국어 화자의 맞장구 표현으로 인한 말걸치기 현상



위의 대화와 그림에서 보여 주듯이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중국어 화자가 '阿姨說 我特別會賣東西'라고 말차례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말차례구성단위인 동사 '說' 뒤에서 맞장구 표현을 사용한다. Clancy et al.(1996)은 맞장구 표현이 외국인 화자가 가장 늦게 배우는 어휘 요소라고 주장하듯이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외국인 화자로서 중국인 화자들이 수행하는 맞장구 행위를 익히지

못하여 한국어 대화에서 하듯이 맞장구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연구에 참여한 한국인 중국어 화자들은 고급 수준의 중국어를 구사하여 중국인 화자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화자들임에도 화자들 간의 상호작용적인 목적에 의하여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맞장구 패턴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어떠한 이유이건 간에 한국인 중국인 화자들은 교착어인 한국어와는 전혀 다른 유형에 속하는 고립어인 중국어를 사용하면서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맞장구 자원을 전이하여 사용한다.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말차레를 진행 중인 상대방 화자의 말차레구성단위 간의 경계에서 맞장구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 화자의 말차레가 끝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상대방의 발화를 잘 듣고 있다는 관심과 흥미를 표현한다.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상대방 화자의 말차레를 취하려는 의도가 없이 상대방 화자가 말차레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권유하는 맞장구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말차레의 기회를 상대방 화자에게 넘긴다. Tao and Thompson(1991)에서는 중국인 화자들이 오로지 상대방 화자의 말차레 끝에서 맞장구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 화자의 발화에 대한 이해, 확인, 동의, 인정을 나타내며 상대방 화자가 말차레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권유하는 기능은 나타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말차레를 진행 중인 중국어 화자의 말차레구성단위 경계에서 맞장구 표현을 제시함으로써 상대방 화자가 말차레를 계속 진행하여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

위의 대화와 그림에서 보여 주듯이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중국어 화자가 ‘阿姨說我特別會賣東西’라고 말차레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말차레구성단위인 동사 ‘說’ 바로 뒤에 맞장구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들 간에 말걸치기 현상이 일어나지만 중국인 화자가 말차레를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중국인 화자는 ‘阿姨說我特別會賣東西’라고 자신이 말차레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말차레구성단위인 동사 ‘說’ 바로 뒤에서 한국인 중국어 화자가 끼어들어 맞장구 표현을 제시하나 이를 자신의 발화에 대한 방해로 여겨 발화를 멈추고 화자들 간의 대화 흐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지 않는다.⁷⁾ 중국인 화자는 맞장구 표현이 나타나는 ‘阿姨說’의 마

7) 일반적으로 화자가 말차레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상대방 화자가 갑자기 끼어들어 화자들 간에 말걸치기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말차레를 진행하는 화자는 이를 자신의 발화에 대

지막 음절인 ‘說’과 ‘我特別會賣東西’의 첫 번째 음절인 ‘我’ 사이에서 발화를 중단하여 원만한 말차례 진행을 방해하는 발화중단, 수정 또는 채움어 등 어떠한 주저 행위를 수행하지 않으며 ‘阿姨說’에 이어 ‘我特別會賣東西’라고 하며 말차례를 계속 진행한다.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 간의 대화에서 중국인 화자 또한 한국인 중국어 화자와 마찬가지로 상대방 화자의 말차례가 복합적추이적정지점에 도달하기 전 말차례 내 언어 구성 요소들 간의 경계에서 맞장구 표현을 사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다음 대화의 예를 보자.

(16)

1 F: 2006年↗
2006 년
'2006년'

2 →N: 嗯
BC
'응'

3 F: 一月開始:↗
일 월 시작하다
'일월에 시작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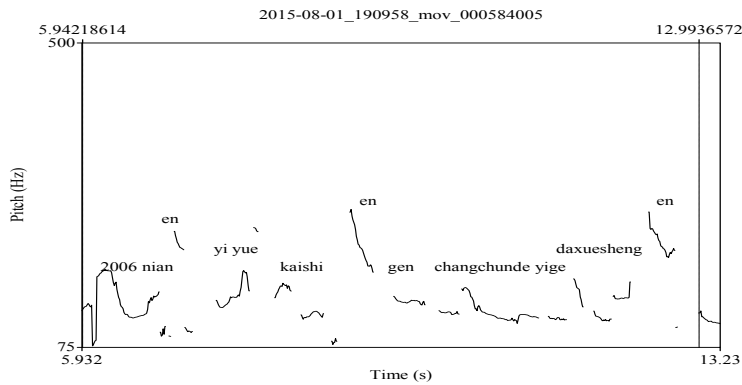
4 →N: 嗯
BC
'응'

5 F: 跟長春的一個大學生↗
와 창춘 POSS 하나 CL 대학생
'창춘의 한 대학생과'

한 방해로 여겨 발화를 멈추고 화자들 간의 대화 흐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낸다(Schegloff 2000).

6 →N : 噫
BC
'응'

<그림 3> 한국인 중국어 화자의 말차례 중간에 나타나는 중국인 화자의 맞장구 현상



위의 대화와 그림에서 보여 주듯이 제2행에서 중국인 화자는 한국인 중국어 화자가 말차례를 진행하면서 '2006年'의 마지막 음절인 '年'을 상승 억양을 통하여 발화 한 뒤 제3행에서 '一月開始'를 발화하기 전 형성한 0.6초 동안의 휴지에서 맞장구 표현인 '噫'을 제공한다. 제4행에서도 중국인 화자는 한국인 중국어 화자가 제3행에서 동사인 '開始'에서 '始'를 상승 억양을 통하여 발화한 뒤 제5행에서 '跟長春的一個大學生'를 발화하기 전 형성한 0.7초 동안의 휴지에서 맞장구 표현인 '噫'을 제시한다. 제6행에서도 중국인 화자는 한국인 중국어 화자가 '跟長春的一個大學生'의 마지막 음절인 '生'을 상승 억양을 통하여 발화 한 뒤 형성한 0.7초 동안의 휴지에서 맞장구 표현인 '噫'을 제시한다. 다음 대화의 예에서도 중국인 화자는 한국인 중국어 화자가 말차례구성단위의 마지막 음절에서 상승조의 억양을 보이고 형성한 휴지에서 맞장구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여 준다.

(17)

1 F : 對, 對成語比較熟悉↗

REPAIR 에 대해 성어 비교적 잘 알아

'성어에 대해 비교적 잘 알아.'

2 →N : 嗯。
BC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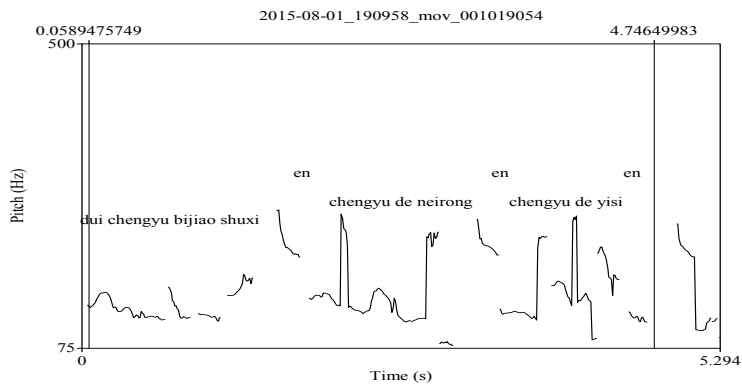
3 F : 成語的內容↗
성어 POSS 내용
'성어 내용'

4 →N : 嗯。
BC
'응'

5 F : 成語的意思↗
성어 POSS 의미
'성어 의미'

6 →N : 嗯。
BC
'응'

〈그림 4〉 말차례구성요소의 마지막 음절에서 나타나는 억양 상승 현상



위의 대화와 그림에서 보여 주듯이 중국인 화자는 제1행에서 한국인 중국어 화

자가 진행 중인 말차례에서 ‘對成語比較熟悉’의 마지막 음절인 ‘悉’을 상승 억양을 통하여 발화 한 뒤 제3행에서 ‘成語的內容’을 발화하기 전 형성한 0.4초 동안의 휴지에서 맞장구를 제시한다. 제4행에서 중국인 화자는 한국인 중국어 화자가 제3행에서 ‘成語的內容’라고 하며 마지막 음절인 ‘容’을 상승 억양을 통하여 발화 한 뒤 제5행에서 ‘成語的意思’를 발화하기 전 가진 0.5초 동안의 휴지에서 맞장구를 제시한다. 제5행에서도 중국인 화자는 한국인 중국어 화자가 ‘成語的意思’의 마지막 음절인 ‘思’를 상승 억양을 통하여 발화 한 뒤 형성한 0.7초 동안의 휴지에서 맞장구를 제시한다. 다음 대화 예는 중국인 화자가 한국인 중국어 화자가 말차례 중간에 말차례구성요소의 마지막 음절에서 음절 연장을 사용하며 휴지를 갖는 동안 맞장구 표현을 제공하는 것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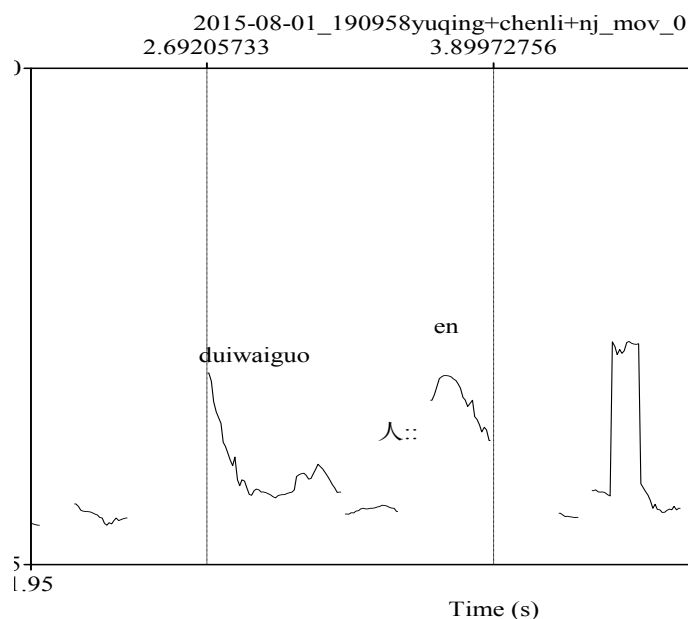
(18)

1 F: 還有, 對外國人::
그리고 에게 외국인
'그리고, 외국인에게::'

2 N: 噫。
BC
'응'

3 F: 更開放./>
더욱 개방적이다
'더욱 개방적이야.'

〈그림 5〉 말차례구성요소의 마지막 음절에서 나타나는 음절 연장 현상



위의 대화와 그림에서 보여 주듯이 중국인 화자는 말차례를 진행 중인 한국인 중국어 화자가 제1행의 ‘對外國人:’에서 ‘人’을 지속적인 억양으로 나타내며 0.23초 동안 길게 연장하며 발화 한 뒤 제3행에서 ‘更開放’라고 발화하기 전 형성한 0.6초 동안의 휴지에서 맞장구를 제시한다.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중국인 화자의 말차례가 복합적추이적정지점에 도달하기 전 말차례구성성분의 경계에서 마지막 음절을 연장하거나 상승조의 억양을 사용하여 말차례 내 단위 경계(intra-turn unit boundaries)를 형성한다. 통사적, 억양적, 화용적 완결점이 아닌 말차례구성단위의 마지막 음절을 연장하거나 상승조의 억양을 사용하여 말차례 내 단위 경계를 형성하는 것은 한국어 대화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다(Kim 1999).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모국어인 한국어 맞장구 자원을 중국어로 전이하여 자신이 진행 중인 말차례 내 단위 경계를 나눔으로써 중국인 화자가 말차례 내 단위 경계를 인식하도록 이끈다.

중국인 화자는 한국인 중국어 화자의 유도에 의하여 말차례 내 단위 경계에 정향하며 한국인 중국어 화자가 말차례 내 단위 경계에서 상대방 화자의 반응을 위하여

형성한 상호작용적인 공간(interactional space)인 휴지에서 맞장구 표현을 제시한다. 중국인 화자는 중국어가 모국어인 이들에게도 중국어와 유형학적으로 전혀 다른 계통에 속한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맞장구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현재까지 진행된 한국인 중국어 화자의 발화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보여 주며 상대방 화자가 말차례를 계속 진행하도록 이끈다.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중국인 화자가 말차례구성단위의 경계에서 형성된 휴지에서 맞장구 표현을 제시한 후 말차례를 원만히 계속 진행한다.

따라서 한국인 중국어 화자가 음절 연장이나 상승 억양 또는 음절 연장을 사용하여 말차례 내 단위 경계를 형성하고 중국인 화자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반응을 유도했음에도 상대방 화자가 말차례 내 단위 경계에서 형성된 휴지 동안 맞장구 표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말차례를 원만하게 진행시킬 수 없다. 다음 대화 예를 보자.

(19)

1 F: 雷克雷克薩斯↗
REPAIR 렉서스
'렉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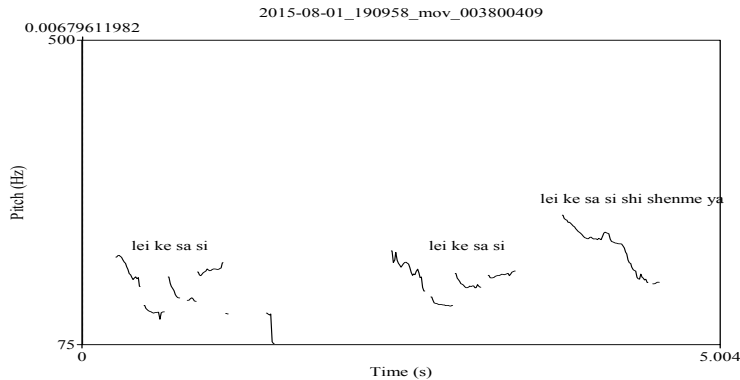
(0.7)

2 F: 雷克薩斯↗
렉서스
'렉서스'

3 N: 雷克薩斯是什麼呀?
렉서스 COP 무엇 PRT
'렉서스가 뭐야?'

4 F: 雷克薩斯是日本的./>
렉서스 COP 일본 POSS
'렉서스는 일본 거야.'

〈그림 6〉 말차례 내 단위 경계에서 맞장구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위의 대화와 그림에서 보여 주듯이 제1행에서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雷克薩斯’의 마지막 음절인 ‘斯’를 상승 억양을 사용하여 발화하며 말차례 내 단위 경계를 형성하고 중국인 화자의 반응을 유도한다.⁸⁾ 중국인 화자가 한국인 중국어 화자가 말차례 내 단위 경계에서 형성한 상호작용적인 공간인 휴지에서 맞장구 표현을 제공하지 않자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말차례를 진행하지 않고 이전의 발화를 반복한다. 제2행에서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雷克薩斯’라고 하면서 말차례 내 단위 경계에서 상승 억양을 사용하여 상대방 화자의 반응을 다시 유도한다.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자신이 형성한 말차례 내 경계에서 상대방 화자인 중국인 화자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상대방 화자의 반응에 따라 말차례의 진행을 조절해나간다.

결론적으로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 간의 대화에서 화자들은 맞장구 발화를 상대방 화자와의 상호작용적인 협상을 통하여 함께 협력적으로 형성한다. 한국인 화자는 중국인 화자의 말차례 중간에 맞장구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현재까지 진행된 상대방 화자의 발화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나타내어 화자가 말차례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권유하는 표시를 하며 말차례를 진행하는 중국인 화자는 한국인 화자의 맞장구 표현을 자신의 발화에 대한 방해로 여겨 화자들 간의 대화 흐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협

8) 위의 그림에서 보여 주듯이 첫 번째 출현하는 ‘雷克薩斯’와 두 번째 출현하는 ‘雷克薩斯’ 사이에 나타나는 하강 억양의 곡선은 상대방 화자의 맞장구 표현이 아니라 주위 소음이다.

력적인 태도를 보인다. 또한 중국인 화자는 한국인 화자의 유도에 의하여 한국인 화자가 자신의 말차례 중간에 형성한 상호작용적인 공간인 휴지에서 맞장구 표현을 제시하여 화자들 간에 확인된 상호주관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말차례를 계속 진행하여 말차례를 마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진행 중인 말차례를 형성하는데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 간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맞장구 표현에 대하여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하여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 간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맞장구 표현의 특징과 그 기능을 분석하였다.

정량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 간의 대화에서 출현하는 맞장구 빈도는 중국인 화자들 간의 대화에서 출현하는 맞장구 빈도에 비하여 훨씬 높다. 중국인 화자들 간의 대화에서는 대부분의 맞장구 표현이 통사적, 억양적, 화용적 완결점이 일치하는 복합적추이적정지점에서만 출현하나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 간의 대화에서는 맞장구 표현이 복합적추이적정지점에서 뿐만 아니라 복합적추이적정지점이 아닌 지점에서도 자주 출현한다. 복합적추이적정지점이 아닌 곳에서 나타나는 맞장구 표현은 말차례의 아무 지점에서나 출현하지 않으며 주어, 목적어, 동사, 부사 등 말차례구성단위가 끝나는 지점에서 형성된다. 이와 같이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 간의 대화에서 복합적추이적정지점 뿐만 아니라 복합적추이적정지점이 아닌 지점에서도 맞장구 표현이 자주 출현하는 결과는 한국어에서 출현하는 맞장구 표현과 동일한 경향을 보여 준다.

정성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 간의 대화에서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중국어와 유형학적으로 전혀 다른 계통에 속한 교착어인 한국어의 영향을 받아 상대방 화자의 말차례가 복합적추이적정지점에 도달하기 전 말차례구성성분 간의 경계에서 맞장구 표현을 사용한다.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상대방 화자의 말차례를 취하려는 의도 없이 상대방의 발화를 잘 듣고 있다는 관심과 흥미를 나타내는 짧은 형태의 맞장구를 통하여 상대방 화자가 말차례를 계속 진행

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권유하는 표시를 나타낸다.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 간의 대화에서 중국인 화자들 또한 한국인 중국어 화자처럼 상대방 화자의 말차례 중간에 맞장구 표현을 사용한다. 중국인 화자는 맞장구 발화를 단독으로 형성하지 않으며 한국인 중국어 화자가 말차례구성요소의 마지막 음절을 연장하거나 상승 억양을 통하여 말차례 내 단위 경계를 형성하고 중국인 화자의 반응을 유도를 함으로써 상호작용적인 공간인 휴지에서 맞장구 표현을 제공한다. 중국인 화자들은 중국어가 모국어인 이들임에도 중국인의 언어 행위에 따라 맞장구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 중국어 화자의 능동적인 참여 유도에 의하여 진행 중인 한국인 중국어 화자의 말차례에서 맞장구 행위를 수행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상대방 화자의 발화에 대하여 자신이 받아들였음을 보여 줌으로써 상대방 화자가 말차례를 계속 진행하여 말차례를 마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상호작용적인 협상을 통하여 맞장구의 사용과 기능을 조정하여 적절하게 맞장구 행위를 수행한다.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상대방 화자의 말차례 중간에 맞장구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나 서로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상대방 화자의 발화에 대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나타낸다.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화자는 맞장구 행위를 통하여 진행 중인 말차례를 함께 협력적으로 구성해 나아감으로써 성공적이며 원만한 대화를 수행해 나아갈 수 있다.

향후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 간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맞장구 표현의 사용과 기능에 대한 연구는 제2 외국어로서 중국어 학습과 교육의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언어마다 사용하는 맞장구의 빈도, 유형, 출현 위치 등이 다르므로 한국인 중국어 화자가 중국어 대화에서 맞장구 표현을 사용하는 방식을 분석하여 맞장구 표현을 활용하는 능력을 분석하고 교수 매체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수 매체 보완 방안 등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맞장구 표현 활용 능력과 학습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분석은 다음 연구 과제로 남겨두도록 한다.

【参考文献】

- Atkinson, J. Maxwell & John Heritage (Eds.) 《Structures of social action: Studies in conversation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 Bavelas, J. B., L. Coates, and T. Johnson 〈Listener responses as a collaborative process: The role of gaze〉, 《Journal of Communication》 52(4), 2002.
- Clancy, P. M., S. A. Thompson, R. Suzuki, and H. Tao 〈The conversational use of reactive tokens in English, Japanese, and Mandarin〉, 《Journal of Pragmatics》 26, 1996.
- Deng, Xudong 〈The use of listener responses in Mandarin Chinese and Australian English conversations〉, 《Pragmatics》 18(2), 2008.
- Drummond, K., & R. Hopper 〈Backchannels revisited: Acknowledgement tokens and speakership incipency〉, 《Research on Language and Social Interaction》 26, 1993.
- Du Bois, John, Stephan Schuetze-Coburn, Danae Paolino and Susanna Cumming 〈Outline of discourse transcription〉 In Jane A. Edwards and Martin D. Lampert (Eds.), 《Talking data: Transcription and coding methods for language research》 Hillsdale, Lawrence Erlbaum, 1993.
- Duncan, S. and D. Fiske 《Face-to-face interaction: Research, methods, and theory》 New Jersey, Lawrence Erlbaum, 1977.
- Duncan, S. 〈Some signals and rules for taking speaking turns in convers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3, 1972.
- Duncan, S., and D. Fiske 《Interaction structure and strate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 Ford, Cecilia E. and Sandra A. Thompson 〈Interactional units in conversation: Syntactic, intonational, and pragmatic resources for the management of turns〉 In Elinor Ochs, Emanuel A. Schegloff and Sandra A. Thompson (Eds.), 《Interaction and gramm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Fries, C. G. 《The Structure of English》 New York, Harcourt Brace, 1952.

- Gardner, R. 《When listeners talk: Response tokens and listener stance》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001.
- Günthner, S. 《German-Chinese interactions: differences in contextualization conversations and resulting miscommunication》, 《Pragmatics: Quarterly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Pragmatics Association》 3(3), 1993.
- Hashimoto, Mantaro J. 《Language diffusion on the Asian continent》, 《Computational Analysis of Asian and African Languages》 3, 1976.
- Heritage, J. 《A change-of-state token and aspects of its sequential placement》 In M. Atkinson and J. Heritage (Eds.), 《Structures of social action: Studies in conversation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 Iwasaki, Shoichi 《Cohesive force in Japanese conversation》, Paper presented to th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Chicago, 1990.
- Jefferson, Gail 《Notes on a systematic deployment of the acknowledgement tokens 'yeah' and 'Mm hm'》, 《Papers in Linguistics》 17, 1984.
- Jefferson, Gail 《Caveat speaker: Preliminary notes on recipient topic-shift implicature》, 《Research on Language and Social Interaction》26, 1993. (Original work published 1983).
- Jefferson, Gail 《A technique for inviting laughter and its subsequent acceptance/declination》 In George Psathas (Eds.), 《Everyday language: Studies in ethnomethodology》 New York, Irvington, 1979.
- Kim, Kyu-hyun 《Phrasal unit boundaries and organization of turns and sequences in Korean conversation》, 《Human Studies》 22, 1999.
- Li, Charles, N. and S. A. Thompson 《An explanation of word order change SVO→SOV》, 《Foundation of Language》 12, 1974.
- Li, Charles, N. and S. A. Thompson 《The semantic function of word order: a case study in Mandarin》 In Charles N. Li (Eds.), 《Word order and word order change》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75.
- Maynard, Senko 《On back-channel behavior in Japanese and English casual conversation》, 《Linguistics》 24, 1986.
- Maynard, Senko 《Japanese conversation: self-contextualization through

- structure and interactional management》Norwood, Ablex, 1989.
- Sacks, Harvey, Emanuel A. Schegloff & Jefferson Gail 〈A simplest systematics for the organization of turn-taking for conversation〉, 《Language》 50, 1974.
- Schegloff, Emanuel A. and Harvey Sacks 〈Opening up Closings〉, 《Semiotica》, 1973.
- Schegloff, Emanuel A. 〈Discourse as an interactional achievement: Some uses of 'uh huh' and other things that come between sentences〉 In D. Tannen (Eds.), 《Analyzing discourse: Text and talk. 32nd Georgetown University Roundtable on Languages and Linguistics 1981》 Washington,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982.
- Schegloff, Emanuel A. 〈Overlapping talk and the organization of turn-taking for conversation〉, 《Language in Society》 29(1), 2000.
- Tai, James. H-Y. 〈Chinese as a SOV language〉, 《PCLS》 9, 1973.
- Tai, James. H-Y. 〈On the change from SVO to SOV in Chinese〉 In S.B. Steever et al. (Eds.), 《Papers from the Prasession on Diachronic Syntax》 CLS, 1976.
- Tanaka, Hiroko 《Turn-taking in Japanese Conversation: A Study in Grammar and Interaction》 Amsterdam, The Netherlands and Philadelphia, Pennsylvania, Benjamins, 1999.
- Tanaka, Hiroko 〈Turn projection in Japanese talk-in-interaction〉, 《Research on Language and Social Interaction》 33, 2000.
- Tao, Hongyin. and Sandra Thompson 〈English backchannels in Mandarin conversations: a case study of superstratum pragmatic "interference."〉, 《Journal of Pragmatics》 16, 1991.
- White, Sheida 〈Backchannels across cultures: a study of Americans and Japanese〉, 《Language and Society》 18, 1989.
- Yngve, V. H. 〈On getting a word in edgewise〉, Papers from the Sixth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Chicago, Chicago Linguistic Society, 1970.
- Young, Richard F. and Jina Lee 〈Identifying units in interaction: Reacitve tokens in Korean and English conversations〉, 《Journal of Sociolinguistics》 8(3), 2004.
- 이홍염 《한·중 맞장구 표현 대조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 논문, 2011.

【부록】

축약(Abbreviations)

- PRT discourse particle
- NEG negative morpheme
- INT intensifier
- QST question particle
- BA the morpheme BA
- CL classifier
- COP copula verb
- PF pause filler
- POSS possessive, genitive
- PRF perfective aspect
- CSC complex stative construction
- BA the ba marker in the ba construction
- BC backchannel

전사 기호

- hh 웃음
- . 짧은 휴지
- = 곧 이어진 말화
- : 말화 늘임
- [] 겹침 말화
- ↗ 상승 억양
- 휴지 (0.0)
- 비음성적 행위 (())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backchannels, focusing on Chinese conversations between native Chinese speakers and Koreans speaking Chinese. Native Chinese speakers and Chinese-speaking Koreans use backchannels with greater frequency in their Chinese conversations than do Chinese speakers with other native Chinese speakers. The analysis also reveals that both Chinese-speaking Koreans and Chinese native speakers use backchannels before complex transition-relevance place arrivals. In particular, Koreans speaking Chinese transfer backchannel resources from their native language when they take part in a Chinese conversation. The Chinese-speaking Koreans form intra-turn unit boundaries that serve as a space within a turn to invite the native Chinese speakers to react at a specific moment through the backchannel. This study shows that the Chinese-speaking Koreans and the native Chinese speakers collaborate and co-construct backchannels to signal that they are attentive to the progress of the current speaker's on-going turn and are allowing the opportunity to do an extended turn of their own to pass. The interactive nature of backchannels demonstrates one way in which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action and grammar reflects the interaction between speakers.

【主題語】

맞장구, 상호작용, 중국어, 중국인 화자, 한국인 중국어 화자
反馈语, 相互作用, 汉语, 汉语母语者, 学习汉语的韩语母语者

backchannel, interaction, Mandarin Chinese, Chinese native speaker,
Korean speaking Chinese

투고일: 2017. 01. 02 / 심사일: 2017. 01. 20 ~ 02. 13 / 게재확정일: 2017. 02. 15